

1800年代에 접어들면서 徐有渠의 「饗鑑雜志」란 調理書가 나왔고 이것이 「林園十六志」鼎俎志의 바탕이 되었다. 그런데 李章閣의 「林園十六志」에는 군데군데 落張이 있고 또 한 分野가 몽땅 빠지기도 하였으니 草稿本인 大阪中之島圖書館本과 對照해볼 必要가 있다.

그런데 「林園十六志」에서는 古今東西의 調理書에서 뽑아 整理하면서 引用文獻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그러나 調理用語는 古今에 따라 또 地域에 따라 變化하고 있는데도 「林園十六志」에서는 原文 그대로를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調理用語에 科學性이 없어서 실제의 調理法과는 매우 다른 概念을 낳고 있다. 게다가 한글用語 사이의 連關이 복잡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를테면 甑은 시루에서 水蒸氣로 지는 것인데 달甑은 시루에서 지는 것이 아니다. 「居家必用」 등에서 시루에서 지는 것이 아닌데도 甑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徐有渠의 兄嫂인 李氏의 한글調理書인 「규합총서」가 나왔고, 이밖에도 1800年代에는 많은 한글 및 漢文의 調理書가 나왔다. 그런데 漢文調理書에는 대개 序文과 著者名이 있으나 年代는 干支만의 경우가 많고, 한글調理書에는 거의가 著者名, 序文, 年代가 없다. 이들의 著作年代는 內容을 자세히 읽어 보면 人名, 事件名 등 몇가 推定에 필요한 손잡이가 잡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이 아주 없으면 用語상의 특징, 用紙 등으로 推定하는 方法도 있겠으나 筆寫本이 많으나 後代의 筆寫時에 당시의 用語나 用紙로 바뀔 可能性이 있으니 危險하다. 干支도 까딱 잘못하면 60年 또는 그 몇배의 착오를 가져오게 된다. 고추는 1600年代 初葉에 傳來되었고, 1700年代 初葉에는 재배가 어느정도 보급되었으며, 1700年 中~後葉부터는 김치 등 調理에 적극 利用되고 있으니 이것을 年代推定의 한 尺度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다가 1900年代에 접어들면서 漢文調理書는 자취를 감추고 수많은 한글調理書가 나타난다.

또 「宮中宴會의 食單인 「進饌儀軌」의 무리는 肅宗45년(1719)부터 高宗 光武 6年(1902)에 이르는 동안의 13種이 남아 있다.

環境論과 都市計劃의 淵源

서울大 環境計劃研究所 康 泓 彬

1

영국의 사학자 홉스봄(Hawbsbaum)은 그의 저서 「혁명의 시대」(*The Age of Revolution*)에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많은 개념들이 실은 19세기의 산물임을 밝히면서, 그 예로 「문화」, 「사회」, 「계층」, 「프롤레타리아」, 「산업」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 첨가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urban planning, Städtebau, urbanisme)이라는 단어와 이 단어로써 표현되는 하나의 전공분야(discipline)이다.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의 여러 분야에 비해 볼 때 도시계획, 혹은 도시학이 분명한 경계를 가진 분야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 「도시계획」 하면 대강 어떤 일을 하는가는 짐작을 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과」라는 전공과정이나 대학교육에 나타난지는 거의 한 세기가 경과했지만, 도시계획을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 건축 등 인접분야와 구별하여 운위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고유한 방법론이나 통일된 이론체계를 가져서가 아니라, 다루어지는 대상이 「도시」라는 점에 기인한다.

도시계획이 고유한 분야이든 응용분야이든 간에 변함없는 사실은 오늘날에는 도시도 지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여러 도시현상을 이해, 설명하고, 이러한 「지식」에 바탕을 두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도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것이 도시계획활동의 기초를 이룬다. 한마디로 세로나, 별자리나, 문화유형이나 마찬가지로 도시도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 도시를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어디에서 도시계획

이라는 분야의 연원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러가지 답이 가능할 것이다. 도시가 커짐에 따라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따라서 자연히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설명도 가능한 것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진전함에 따라 자연히 도시현상이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인류가 도시생활을 시작한 이래 도시문제는 계속 존재했었다. 네로의 로마방화도 이것의 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해, 설명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최근 두세 세기의 소산이다. 또한 과학적 사고의 진전이, 곧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논리로는 통하지 않는다. 분명히 사고는 대상을 선택한다. 역시 왜 도시가 이러한 사고의 대상이 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이 소론에서 주장하려는 것은 「환경론」(environmentalism)이라는 사고방식 내지는 세계관의 등장인 사람들이 하여금 도시로 눈을 돌리게 한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현미경이라는 도구가 있기 전 사람들의 인식 세계에서는, 미생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었다. 마찬가지로 「환경」이라는 인식의 카테고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시환경이 하나의 실체로서 미셸푸코(Michel Foucault)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의 “positivity”로서 의식의 표면에 등장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의식 속에서 「도시」의 등장은 「환경」이라는 카테고리, 또는 「환경론」이라는 사고방식의 등장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다.

프랑스의 과학철학자 깡길렌(Canguilhem)이 지적하듯이 「환경」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카테고리의 하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시간, 공간을 가진 상황 속에 던져지기 마련이며, 주변상황과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것도 주변상황으로부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어느 것도 환경을 떠나 영구불변할 수 있는 절대적 존

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나 사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시와 같은 사람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은 새로운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우리의 의식세계에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더 이상 그 자체로서는 실체가 없는 개개의 집들의 집합이 아니고, 더군다나 배경에 불과한 「무대장치」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며, 또한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개선하여야 할 환경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에드윈 차드윅(Edwin Chadwick)의 공중보건운동에서 발견한다.

2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비롯한 「공중보건운동」이 현대 도시계획의 형성에 직접적인 계기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도시계획사의 정설로 되어 있다. 레오나르도 베네볼로(Leonardo Benevolo)가 지적하는대로, 1848년의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은 종래의 자유방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도시관리가 공공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는 일임을 밝힘으로써 현대적 도시계획의 사상과 체제에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배려가 19세기에 이르러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에서도 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의 조치는 있었고, 케스트가 만연하였던 중세 유럽에서는 격리수용 등 여러가지 대처방식이 채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19세기 이전에는 관심의 초점이 병의 예방보다 환자의 치유에 있었고, 환경조건과 일반대중의 건강상태를 인과론적으로 연결시키는 사고는 별로 대두되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의학자가 뚜렷이 밝혀 주듯 「공중보건」, 「예방의학」 등의 난어나 분야는 분명히 19세기의 산물이다.

이 「예방의학」의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왕립빈민구제위원회(Poor Law Commission)의 간사 에드윈 차드윅(Edwin Chadwick)이었다. 그 자신은 의사가 아니고 행정가였지만 차드윅은 종래 널리 받아들여졌던 전염병에 대한 관념, 즉 전염병은 자연이 주는 검벌이며 인

위적인 방법으로는 제거될 수 없다는 맬더스적 혹은 기독교적인 관념에 대항하여, 전염병은 환경조건의 개선으로써 퇴치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의도로서 차드윅과 사우드우드 스미드(Southwood Smith), 아노트(Arnott), 케이(Kaye) 등 빈민구제위원회의 의사들은 1차로 1838년에 런던의 빈민가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조건과 치사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고, 1842년에는 범위를 넓혀 전 영국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작성된 것이 유명한 「노동인구의 위생조건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the Sanitary Conditions of the Labouring Population)이다.

방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는 불결한 환경-노출된 쓰레기, 하수, 오염된 공기와 물, 밀집된 매장지-이 콜레라 등 전염병의 원인이 되며,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국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제기하고, 이러한 환경조건을 제거하여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주장을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대한 검사, 관리, 계획, 보수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제도적·행정적 장치도 이 보고서에서 제안되었다. 이 결과 공중보건법이 제정되어 차드윅의 주장의 많은 부분이 제도화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공중위생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고양되어 「예방의학」이 하나의 분야로서 성장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차드윅의 보고서는 다만 환경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방증만을 제시하는 데에 그쳤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가 나온 1842년에는 아직 박테리아의 존재도 밝혀지지 않고 있었고, 따라서 본격적인 전염병학이나 병리학은 존재하지 않던 때였다. 다시 말해 공중위생에 대한 차드윅의 주장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고, 그 주장의 전파에 타당성을 제공해 준 것은 박테리아의 발견과 더불어 그 토대가 무너진, 부정확한 의학 학설이었던 것이다.

이 학설이 바로 「쓰레기병원론」(pythogenetic theory of disease)이다. 이 학설에 따르면 쓰레기, 썩은 하수물 같은 부패한 유기물에서 병원체가 형성되어 전염병이 유발된다. 이 「쓰레

기병원론」은 히포크라테스 이래로 많이 신봉되었던 「공기병원론」(miasmatic theory)과 유사하나, 병원체의 생성을 거주환경 같은 장소에 고유한 조건에 연결시키는 점이 다르다.

차드윅의 공중보건운동의 승리는 결국 「쓰레기병원론」의 승리를 뜻한다. 이것은 한편 「접촉전염설」(contact theory of disease communication)의 후퇴를 배경으로 한다.

「접촉전염설」은 16세기경부터 대두하기 시작하여 「쓰레기병원론」이 등장하는 19세기 직전에는 가장 지배적인 학설로서 의학계를 풍미하던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병원체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같이 전파되는 것으로, 병원체의 전파는, 이를 가진 환자와 건강인의 물리적 접촉에 의하여 일어나며, 이 병원체를 보유함으로써 발병하게 된다. 이 「접촉전염설」의 입장에서 보면 전염병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환자와 건강인을 격리수용(quarantine)하여 접촉에 의한 감염은 막는 데에 있었으며, 따라서 차드윅이나 빈민구제위원회의 의사들이 주장하는대로 불결한 환경을 없애는 일은 그 자체가 심미적으로 타당한 조치일 수는 있어도 공중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병을 예방하는 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일로 비쳐졌던 것이다.

이 두 학설-「쓰레기병원설」과 「접촉전염설」의 대립은 18세기 말에서부터 차드윅의 보고서가 나오는 19세기 중엽까지, 영국의 의학계뿐 아니라 전염병의 만연에 대처하여야 하였던 정부당국까지도 사로잡았던 문제였다. 분명한 정설이 없었던 이상, 이 대립은 다만 의학상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정부 속에서는 검역을 담당할 세관쪽의 이해와, 하수도, 청소 등을 담당할 쪽과의 갈등이 얹혀 있었고, 또한 검역에 의한 피해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수출입업자와, 토지에 대한 규제에 이해가 걸린 지주들과의 갈등도 여기에 연결된 문제이었다. 이와 더불어, 사유권에 대한 정부의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되어 마땅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문제 역시 이 학설의 대립과 연관되었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이 대립은 서로 대칭되는 두 사고방식의 대립이었다. 「쓰레기병원설」은 병의 근원을 인위적인 환경에서 찾고, 구체적인 환경문제

들을 가진 장소의 집합으로서 도시공간을 파악하는 데에 반해, 「접촉전염설」은 병의 근본적인 근원은 초인간적인 데에 있으며, 도시공간은 다만 병원체가 전파되는 빈 공간으로서만 파악하였다. 비유하자면 「쓰레기병원설」이 장(field)의 개념으로 도시환경을 보았다면 「접촉전염설」은 데카르트적인 공극(void)의 개념으로 도시공간을 파악했다 할 것이다.

1860년 박테리아가 처음 발견되고, 그 뒤 차 콜레라 등의 세균이 밝혀지면서, 이 두 학설 간의 대립은 종식되었다. 이 양 학설이 모두 일면의 타당성은 지니지만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것임이 미생물학의 진전과 함께 드러났던 것이다. 오늘날 아무도 쓰레기가 변하여 병원체가 된단지, 병이 매체 없이 접촉에 의해 옮겨진다고 생각치는 않는다.

무엇이 엇비슷하게 부정확한 두 학설 속에서 하나의 부상시키는가? 왜, 「과학적」인 우월성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 속에서도, 「쓰레기병원론」이 「접촉전염설」보다 더 설득력있는 학설로 등장케 되었는가?

이것은 칼 포퍼(Karl Popper)나 임레 라카토스(Imre Lakatos)가 주장하는 과학지식의 진전논리로써는 설명되지 않는 문제이다. 오히려 쿤(Kuhn)의 패러다임(paradigm)이나 미셀 푸코의 지식고고학(archaeology of knowledge)적인 접근으로써 비로소 이해가능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병원설」의 등장과 성공은 결국 그러한 학설이 있게끔 하는, 즉 환경조건을 인과관적인 눈으로 조명하게끔 하는, 「환경론」이라는 사고방식의 대두가 전개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사고의 심층에 「환경론」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의식수준에서 「쓰레기병원설」이라는 학설이 구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설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비로소 차드윅이 주장하는대로, 도시환경과 공중위생이 인과관계로서 연결될 수 있게 되며, 이런 토대 하에서 비로소 도시환경을 인위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도시계획이 의미있는, 그리고 지적으로 타당한 행동양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환경론」이라는 일련의 사고방식의 대두가 도시계획분야(discipline)의 한 연원을 이룬다

고 주장하는 것이다.

연금술사 뉴튼

전 성균관대 사학과 송 상 용

뉴튼은 과학자로서의 생산적인 기간에 엄청난 시간을 연금술 연구에 바쳤다. 17세기 기계적 철학의 절정을 장식한 그가 이와 양립하기 어렵게 보이는 신비적인 연금술에 깊이 빠졌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다.

뉴튼의 연금술 연구업적은 그를 존경한 후세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 주었다. 연금술 논문들은 사후출판에서 부적당하다고 해서 제외되었으며 18세기에 전집을 만들 때도 Horsely가 빼버렸다. Stuckley는 「뉴튼회상」(1752)에서 18세기의 반연금술경향을 반영, 뉴튼의 연구를 연금술 아닌 화학으로 설명하려 했다.

「뉴튼의 생애」(1831)를 쓴 Brewster는 뉴튼의 원고 가운데 연금술에 관한 것이 많음을 보고 숨길 수도 없어 뉴튼, 록, 보일의 연금술을 보통의 연금술과 구별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타기할 연금술에 관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More는 「뉴튼전기」(1934)에서 뉴튼이 「프링키피아」를 쓸 때 피로하면 쉬는 방법으로 연금술을 했다고 가볍게 넘겼다. 그는 연금술 연구를 뉴튼의 신비적·실질적 취향으로 돌리고 나머지 과학과 연결지으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1936년 Conduitt의 후손들에 의해 보관되었던 뉴튼의 연금술 원고가 경매에 붙여짐으로써 본격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경제학자 Keynes는 경매때 흠어진 원고를 반 가까이 다시 모아 들여 죽을 때 케임브리지대학에 남겼다. Keynes는 1946년에 열린 뉴튼 300주년 축하 왕립학회 행사에서 뉴튼연금술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뉴튼이 이성의 시대의 첫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마술사라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

그뒤 Taylor, Georghegan, Churchill 등의 Keynes수집원고 연구는 뉴튼연금술과 나머지 업적의 통합의 시작이었다. Taylor는 뉴튼을